이순신 관련 금석문 목록

자료

• **고하도유허비(李舜臣高下島遺墟碑)**

- 대 : 1722년(경종2년)
- 규 격 : 높이 225cm, 너비 192cm, 두께 37cm
-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 내 용

0 이 비는 1722년(경종 2년)에 세워진 것으로, 남구만(南九萬)이 비문의 글을 짓고 조태구(趙泰耉)가 글씨를 썼으며, 이광좌(李光佐)가 전서(篆書)를 썼다.

비문에 의하면 1597년(선조 30년)에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이 나주(羅州) 고하도(高下島)에 진(陣)을 설치하고 군량(軍糧)을 이곳에 비축한 후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였다고 한다. 나중에 진이 당곶(唐串)으로 옮겨 가면서 폐허가 됨에 따라 후임 절도사 오중주(吳重周)가 군사와 백성의 뜻을 모아, 고하도에 처음 설진했던 곳에 이 비석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 탁본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한 연대는 1970년대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단행본)조동원, 1979 『한국금석문대계』1, 원광대학교출판국

• **이순신명량대첩비(李舜臣鳴梁大捷碑)**

- 연 대 : 1688년(숙종14년)
- 소 재 지 :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186-7번지
- 특기사항 : 보물 - 제 503호
- 내 용

0 1597년(선조 30년) 9월에 있었던 명량해전(鳴梁海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조선시대 일반적인 석비(石碑)의 형태를 따라, 직사각형의 받침돌 위에 비신(碑身)을 꽂고, 그 위에 구름과 용을 장식한 옥개석(屋蓋石)을 얹은 것이다. 비문은 당시 예조판서(禮曹判書) 이민서(李敏敍)가 1686년(숙종 12년)에 지었는데, 그의 문집인 『서하집(西河集)』에도 전하고 있으며, 비신의 글씨는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정영(李正英)이 해서(楷書)로 썼다. '통제사충무이공명량대첩비(統制使忠武李公鳴梁大捷碑)'의 12자 전액(篆額)은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이 쓴 것으로, 1688년(숙종 14년)에 전라우도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 박신주(朴新胄)가 건립하였다. 이 비는 일제시기에 경복궁(景福宮)으로 옮겨졌다가, 8·15 광복 이후에 원래 위치로 옮기고 비각(碑閣)을 세워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비문에는 이순신(李舜臣)이 우수영(右水營)의 건너편에 있는 진도(珍島) 벽파정(碧波亭) 아래에 진을 치고, 우수영과 진도의 해협을 흐르는 급류를 이용하여 일본군의 선단(船團)을 격파한 전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비는 현재 보물 제503호로 지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 ,『조선금석총람』하, 일한인쇄소인쇄, 1919

• **이순신신도비(李舜臣神道碑)**

- 연 대 : 1794년(정조18년)
- 규 격 : 높이 233cm, 너비 106cm, 두께 47cm
-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 내 용

0 이 비는 1794년(정조 18년) 충청남도 아산에 건립된 이순신신도비(李舜臣神道碑)로, 정조(正祖)가 비문을 지었다.

충무공 이순신(1545~1598년)의 자는 여해(汝諧), 본관은 덕수이다. 1576년 무과에 급제하여 변견의 권관,

지내고 정읍현감으로 재직중 유성룡의 천거를 받아 승진하여 1591년에 전라좌조수군절도사가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옥포해전, 한산대첩을 통해 해군의 우위를 유지하여 전세를 유리하게 하고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정유재란시 원균의 모함과 왜군의 모략으로 실각하여 백의종군하였으나 원균이 전투에서 패배하여 전사한 후 다시 통제사가 되고 명량해전 등에서 승리를 거두어 수군을 재건하였다. 풍신수길이 죽고 왜군이 퇴각하는 시점에 왜군을 추격하다가 노량해전에서 유탄을 맞고 전사하였다. 아산 현충사, 충부 충렬사, 순천의 충민사 등에 제향 되었다. 묘는 아산시 음봉면 어라산(於羅山)에 있으며 정조대왕이 1793년에 영의정을 증직하고 직접 신도비문을 지어 1794년에 세웠다.

현재 탁본은 성균관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된 연대는 1970년대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조동원 ,『한국금석문대계』2,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1,

• **(李舜臣遺墟碑)**

- 연　　대 : 1832년(순조32년)
- 규　　격 : 높이 186cm, 너비 76cm, 두께 22cm
-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이락사
- 내　　용

0 이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유허비(遺墟碑)는 바로 충무공이 순국한 관음포(觀音浦)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관음포는 임진왜란의 마지막 격전지로써, 남해현(南海縣)에서 동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다. 충무공은 바로 이 관음포에서 도망하는 왜적들을 무찌르다가 적의 유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였으니, 그때가 바로 1598년(선조 31년) 11월 19일 이른 아침이었다.

이 유허비는 1832년(순조 32년)에 세워졌는데, 비문에는 충무공의 공적을 찬양하고 관음포에 유허비를 세우게 된 이유와 과정 등을 기록하고 있다. 비문은 홍석주(洪奭周)가 글을 짓고, 이익회(李翊會)가 글씨를 썼다.

현재 탁본은 성균관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된 연대는 1970년대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조동원 편저, 『한국금석문대계』4,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5,

• **이순신좌수영대첩비(李舜臣左水營大捷碑)**

- 연　　대 : 1615년(광해군7년)
- 규　　격 : 높이 305cm, 너비 124cm, 두께 24cm
-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620번지
- 특기사항 : 보물 - 제 571호
- 내　　용

0 좌수영대첩비(左水營大捷碑)는 조선 광해군 7년(1615년)에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었던 여수에 충무공(忠武公) 이순신 장군(1545~1598년)의 공훈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비이다. 비의 형태는 한 돌로 이루어진 지대석(地臺石)과 귀부(龜趺), 비좌(碑座)위에 비신(碑身)이 서 있으며, 그 위에 구름과 용, 연꽃 등이 조각된 머릿돌을 올린 모습이다. 비신(碑身) 윗 부분에는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글씨로 '통제이공수군대첩비(統制李公水軍大捷碑)'라는 비의 이름이 전서(篆書)로 새겨져 있으며, 비문에는 충무공의 노량, 한산, 옥포 등의 해전에서 세운 공적을 기술하고 있다. 비문(碑文)은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이 짓고 글씨는 남창(南窓) 김현성(金玄成)이 썼다. 비의 왼쪽에는 숙종 24년(1698년) 남구만이 지은 비의 건립에 관한 기록을 적은 동령소갈비가 있는데, 이 비의 기록에 의하면 좌수영 지역의 유지 및 후손들의 노력으로 건립되었으며, 이충무공의 부하로 있다가 전라좌수사 · 황해병사를 지낸 유형(柳珩)이 돌을 보냈다고 한다. 이 때 타루비(보물 제1288호)도 대첩비 옆으로 옮겨 세우고, 비각을 세워 보존하였다는 비 건립 전후의 기록이 밝혀져 있다.

비는 일제 말기에 일본인들이 반일(反日) 내용이 담긴 고적(古蹟)들을 철거한다는 정책에 따라 총독부의 명령으로 1942년에 '명량대첩비(鳴梁大捷碑)', '타루비(墮淚碑)'와 함께 서울로 옮겨져 경복궁 근정전(景福宮 勤政殿) 앞뜰 땅 속에 깊이 묻혀 있었다. 해방 이후에 발견되어 여수읍사무소에 임시로 두었다가, 1947년 이충무공과 연관된 고소대(姑蘇臺)에 비각을 세워 타루비(보물 제1288호), 동령소갈비와 함께 안치하였다.

-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 『조선금석총람』하, 일한인쇄소인쇄, 1919,

• **(李舜臣忠烈廟碑)**

- **연　　대 :** 1681년(숙종7년)
- 규　　격 : 높이 135cm, 너비 93cm, 두께 20cm
-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213번지
- 특기사항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113호
- 내　　용

0 충무(忠武)의 충렬사(忠烈祠; 사적 제236호)는 선조(宣祖) 39년(1606년)에 충무공(忠武公)의 막장(幕將)이었던 이운용(李雲龍)이 통제사(統制使)가 되었을 때 왕명에 의해 창건하였다. 그 후 숙종(肅宗) 7년(1681년)에 통제사충무공(統制使忠武公)의 충렬묘비(忠烈廟碑)가 세워졌다. 비문에 의하면, 이 비는 이미 67년 전에 좌의정 이항복이 비문을 지어 세웠던 여수좌수영 대첩비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와, 잊혀져 가는 이충무공의 충절을 기리고 이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60대 통제사 민섬(閔暹)이 건립했다고 한다. 비의 머리 부분의 전액(篆額)이 '통제사충무이공충렬묘비명(統制使忠武李公忠烈廟碑銘)'이라고 되어 있음으로 보아 원래 충렬사의 이충무공의 사당에 모셔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의 전액은 김수항(金壽恒)이 쓰고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썼다. 현재는 충렬사 외삼문 곁 비각에 다른 비들과 함께 보존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 『조선금석총람』하, 일한인쇄소인쇄, 1919,

• **제승당유허비(制勝堂遺墟碑)**

- 연　　대 : 1739년(영조15년)
- 규　　격 : 높이 173cm, 너비 64cm, 두께 26cm
-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 내　　용

0 제승당(制勝堂)은 경남 통영시 한산도의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사령부가 있던 곳으로, 이순신 장군이 이곳을 본거지로 삼아 왜적과 세 번 접전하여 적을 섬멸시키고 해상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적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여 적의 사기와 전의(戰意)에 큰 타격을 준 곳이다.

기미년(1739, 영조 15)에 이 옛터에 통제사 조경(趙儆)이 유허비(遺墟碑)를 세웠고, 경신년(1740, 영조 16)에는 제승당을 세웠다.

비문은 도사(都事) 정기안(鄭基安)이 지었고, 조경이 글씨를 썼다.

현재 탁본은 성균관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된 연대는 1970년대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0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편,『박물관도록』,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1997

0 조동원 편저, 『한국금석문대계』4,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5

0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지천집.오음유고.충무공전서.천곡집』, 아세아문화사, 1984

0 이순신 저, 최남선 편,『이충무공전서』, 신문관, 1918

• **충열사묘비(忠烈祠廟碑)**

- 대 : 1660년(현종1년)
- 규 격 : 높이 250cm, 너비 250cm, 두께 10cm
- 소 재 재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0번지
- 내 용

0 이 비석은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0번지에 있는 충렬사(忠烈祠)에 봉안되어 있다. 비석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의 비각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비석의 형태는 길다란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1660년 이순신의 호국충절을 기려 왕명에 의해 제작, 건립된 이 비석은 임진왜한의 발발 배경, 충무공의 전공과 전략, 묘비를 만들게 된 동기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비문은 모두 592字이다. 우암 송시열이 비문을 짓고, 명춘당 송준길이 글씨를 썼다.

당시 충렬사의 원찰(願刹)이 화방사(花芳寺)였기 때문에, 현종은 이 비와 똑같은 목비(木碑)를 하나 더 제작하여 화방사에 봉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1981년 원일모를 화재로 대웅전과 함께 소실되고 말았다. 이후 1997년 민간역사연구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여 똑같은 목비 2기를 새겨 해군사관학교와 화방사에 각각 기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참고문헌 : 남해문화원, 『남해의 금석문을 찾아서』 남해문화원, 1989

• **(墮淚碑)**

- 연 대 : 1603년(선조36년)
-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620번지
- 특기사항 : 보물 - 제 1288호
- 내 용

0 이 비석은 이순신 장군이 순절한 지 6년 후인 1603년(선조 36)에 이순신 장군 막하에 있던 군사들이 장군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비문은 '영하수졸위통제사 이공순신입단갈명왈타루 개취양양인사양 호이망기비즉루필타자야 만력삼십일년추립(營下水卒爲統制使李公舜臣立短碣名曰墮淚蓋取襄陽人思羊祜而望其碑則淚必墮者也萬歷三十一年秋立)'이라고 적혀 있다. 즉 '영하의 수졸들이 통제사 이순신을 위하여 짤막한 비를 세우니 이름은 타루이다. 중국의 양양 사람들은 양호(羊祜)를 생각하면서 그 비를 바라다보면 반드시 눈물을 흘린다는 고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1603년 가을에 세우다.'라는 내용이다.

꽃무늬를 새긴 대석(臺石) 위에 연화(蓮花) 비좌(碑座)를 마련하여 비신을 세우고, 운문(雲紋)과 연(蓮)봉오리형으로 된 개석을 얹었다.

- 참고문헌 : (단행본)조선총독부,『조선금석총람』하, 일한인쇄소인쇄, 1919

• **정담수묘표(鄭聃壽墓表)**

- 연 대 : 1899년(고종36년)
- 규 격 : 높이 189cm, 너비 53cm, 두께 23cm
-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 내 용

0 이 비는 1899년(광무 3년) 경기도 평택에 건립된 정담수묘표(鄭聃壽墓表)로 송근수(宋近洙)가 비문을 지었고, 이헌직(李憲稙)이 글씨를 썼다.

정담수(鄭聃壽 : 1550~1604년)의 본관은 해주이고, 자는 덕수(德叟)이다. 어려서부터 지기가 높아 남에게 구애받지 않았고, 본래 유가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 붓을 던지고 무과에 합격하여 훈련원판관, 어란만호가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에게 몸을 맡겨 왜적을 격퇴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전공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탁본은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된 연대는 1980년대로 추정된다.

• **(關王廟碑)**

- 연　　대 : 1713년(숙종39년)
- 규　　격 : 높이 253cm, 너비 93cm, 두께 20cm
- 소 재 지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충무리
- 내　　용

0 이 비는 완도군 고금도에 세워진 관왕묘비(關王廟碑)이다.
고금도 관왕묘는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이 세운 것으로, 충무공 이순신이 노량에서 전사하고, 임진왜란이 끝날 때 진린이 부하를 거느리고 돌아가면서 고금도에 이순신을 위해 묘사(廟祠)를 부탁하며 세운 것이다. 비문에는 중국의 위대한 장수인 관우의 사당에 이순신을 배향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0 참고문헌 : 완주군지편찬위원회, 『완주군지』, 완주군청, 1996,

• 권율신도비(權慄神道碑)

- 연　　대 : 1861년(철종12년)
- 규　　격 : 높이 186cm, 너비 82cm, 두께 40cm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산 168-1번지
- 특기사항 : 경기기념물 제2호
- 내　　용

0 이 비는 1861년(철종 12년) 경기도 양주에 건립된 권율신도비(權慄神道碑)로 신흠(申欽)이 비문을 지었고, 이유원(李裕元)이 글씨를 썼다.
권율(權慄 : 1537~1599년)의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언신(彦愼)이며, 호는 만취당(晩翠堂)이다. 1582년(선조 15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 전적, 전라도도사, 예조정랑, 호조정랑, 경성판관, 의주목사를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선조 25, 1592년)이 일어나 수도가 함락된 후 전라도순찰사 이광(李洸)과 방어사(防禦使) 곽영(郭嶸)이 4만여 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 광주목사로서 곽영의 휘하에 들어가 중위장(中衛將)이 되어 북진하다가 용인에서 일본군과 싸웠으나 패하였다. 그 뒤 남원에 주둔하여 1,000여 명의 의용군을 모집, 금산군 이치(梨峙)싸움에서 왜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의 정예부대를 대파하고 전라도순찰사로 승진하였다. 1593년(선조 26년)에는 병력을 나누어 부사령관 선거이(宣居怡)에게 시흥 금주산(衿州山)에 진을 치게 한 후 28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행주산성(幸州山城)에 주둔하여, 3만 명의 대군으로 공격해온 고바야카와의 일본군을 맞아 2만 4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며 격퇴하였다. 그 전공으로 도원수에 올랐으며 1596년(선조 29년) 충청도순찰사에 이어 다시 도원수가 되었다. 1597년(선조 30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적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명나라 제독(提督) 마귀(麻貴)와 함께 울산에서 대진했으나, 명나라 사령관 양호(楊鎬)의 돌연한 퇴각령으로 철수하였다. 이어 순천예교(順天曳橋)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전쟁의 확대를 꺼리던 명나라 장수들의 비협조로 실패하였다. 임진왜란 7년 간 군대를 총지휘한 장군으로 바다의 이순신과 더불어 역사에 남을 전공을 세웠다. 1599년(선조 32년) 노환으로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갔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현재 탁본은 양주문화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된 연대는 1980년대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0 양주문화원, 『비문으로 본 양주의 역사』1, 양주문화원, 1998,
0 조동원,『한국금석문대계』5, 원광대학교 출판부, 1979,

• 남유묘비(南瑜墓碑)

- 대 : 1724년(경종4년)
- 규 격 : 높이 30cm, 너비 20cm
- 내 용

0 남유(南瑜 : 1552 ~ 1598년)의 자는 시망(時望)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아버지는 남응용(南應龍)이고 어머니는 현감 정맹수(鄭孟壽)의 딸인 영일정씨(迎日鄭氏)이다.

돌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무과에 급제하여 주로 외직에 근무하였는데, 정유재란 중 나주목사로 있으면서 노량해전에 참전하였다가 적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을 끝내게 한 중요한 전투로 알려져 있고, 이 전투에서 이순신이 사망했다는 것은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유 역시 이순신의 휘하에 중군으로 전투에 참여하여 사망함으로써 역사에 남아있게 되었다. 묘갈명에서는 남유가 이순신보다 한 단계 낮은 원종공신 2등에 녹훈된 것을 섭섭하게 여겼고, 나중에 아들 남이흥의 공로로 좌의정과 의천부원군에 추증된 일을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하였다. 그만큼 남유의 공로를 높이 산 것이다. 아들 남이흥도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로를 세운 것을 볼 때 남유 부자는 2대에 걸쳐 조선왕조에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탁본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으며, 탁본한 연대는 1920년대로 추정된다.

• **(鹿堡破胡碑)**

- 연 대 : 1762년(영조38년)
- 내 용

0 이 비는 1762년(영조 38년)에 세워진 것으로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조명정(趙明鼎)이 비문을 썼다. 비문에 의하면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이 1587년(선조 20년)에 조산 만호 겸 녹보둔전관(造山萬戶兼鹿堡屯田官)으로 부임해 와 변방 오랑캐를 물리친 곳이라고 한다. 오랑캐가 둔전(屯田)의 곡식이 익은 것을 보고 쳐들어와 목책(木柵)을 에워싸고 병사를 풀어 크게 노략질을 하자 이순신이 진(鎭)에 올라 북쪽으로 3리쯤에 있는 높은 봉우리에서 방어하며 적이 다니는 길목에 기병(奇兵)을 나누어 매복시켜 크게 승리하였으며, 후인이 그 봉우리를 승전대(勝戰臺)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현재 탁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 『조선금석총람』하, 일한인쇄소인쇄, 1919,

• **서애유성룡묘전비(西厓柳成龍墓前碑)**

- 연 대 : 1824년(순조24년)
- 규 격 : 높이 124cm, 너비 67cm, 두께 23cm
-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리
- 내 용

0 이 비는 1824년(순조 24년) 경상북도 안동에 건립된 서애유성룡묘전비(西厓柳成龍墓前碑)로 유원지(柳元之)가 비문을 지었고, 이상정(李象靖)이 글씨를 썼다.

유성룡(柳成龍 : 1542~1607년)의 본관은 풍산이고, 자는 이현(而見)이며. 호는 서애(西厓)이다. . 의성 출생. 이황(李滉)의 문인. 1566년(명종 21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었고, 이어 예문관검열,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였고, 1569년(선조 2년)에는 성절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경연검토관, 수찬, 교리, 응교, 직제학, 부제학을 지내고 향리의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상주목사를 지원했다. 1584년(선조 17년) 예조판서로가 되었고, 1588년(선조 21년) 양관(兩館) 대제학이 되었다. 1590년(선조 23년) 우의정에 승진하고, 이듬해 좌의정, 이조판서가 되었다.

임진왜란(선조 25, 1592년)이 일어나자 도체찰사(都體察使)로 군무를 총괄, 이순신(李舜臣) ·권율(權慄) 등 명장을 등용하였다. 이어 영의정이 되었다. 1604년(선조 37년) 풍원부원군에 봉해졌다. 저서로는 『서애집』,『징비록』등이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탁본은 안동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된 연대는 1980년대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안동시립민속박물관 편,『안동의 비석』, 안동민속시립박물관, 1995

• **(宋大立墓碣)**

- 연　　대 : 1750년(영조26년)
- 규　　격 : 높이 30cm, 너비 20cm
- 내　　용

0 송대립(1550~1597년)은 본관은 여산이니, 전라도 고흥군 동강명 마륜리 출생이다. 젊어서 학문을 하였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1594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정유재란 때에 동생 희립과 이순신 장군휘하에서 활약하다가 고향에 돌아와 의병을 거느리고 동강 첨산전투에서 중과부적으로 전사하였다. 후일 아들 송심이 정축년(인조 15, 1637년) 호랑에서 전사하니 쌍충정려를 내렸다. 전서로 유명한 유척기가 전액하였다.
현재 탁본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된 연대는 1920년대로 추정된다

• **쌍충사적비(雙忠事蹟碑)**

- 연　　대 : 1792년(정조16년)
- 규　　격 : 높이 217cm, 너비 103cm, 두께 29cm
- 원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00-3번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 내　　용

0 제씨(諸氏)의 쌍충사적비(雙忠事蹟碑)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우고 전사한 제말(諸沫) 장군과 정유재란 때 이순신 휘하에서 싸우다 전사한 그의 조카 제홍록(諸弘祿)의 공을 새긴 것으로, 1792년(정조 16년)에 세워졌다.
제말 장군은 의병을 모아 웅천(熊川), 김해, 의령 등지에서 공을 세워 성주목사(星州牧使)가 되었으나 성주전투에서 전사하였고, 제홍록은 제말 장군과 함께 싸워 공을 세웠으나 정유재란 때 이순신 휘하에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비문에는 두 제씨의 풍모(風貌)와 집안 내력, 공적(功績)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공을 칭송한 남구만(南九萬) 등의 말도 수록하고 있다.
비문은 서유린(徐有隣)이 짓고, 이병모(李秉模)가 글씨를 썼으며, 조윤형(曺允亨)이 전액(篆額)하였다.
현재 탁본은 성균관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된 시기는 1980년대로 추정되고 있다.

- 참고문헌

0 진주문화원, 『진주성 문기』, 진주문화원, 1992
0 진주문화원, 『진주의 문화유산』, 진주문화원, 1998
0 조동원, 『한국금석문대계』3, 원광대학교출판국, 1982,
0 조동원 편저, 『한국금석문대계』4,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5,

• **유형신도비(柳珩神道碑)**

- 연　　대 : 1618년(광해군10년)
- 규　　격 : 높이 175cm, 너비 75cm, 두께 47cm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산 698번지
- 특기사항 : 경기도기념물 제 50호
- 내　　용

0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京畿道 高陽市 德陽區 幸信洞) 산 698번지에 자리한 유형 묘소(柳珩 墓所) 밑 50m 지점에 있는 유형의 신도비이다. 본래의 신도비는 이정구(李廷龜)가 글을 짓고, 김현성(金玄成)이 글씨를 썼으며, 김상용(金尙容)이 전액(篆額)을 써서 1618년(광해군 10년)에 세웠는데, 1874년(고종 11년)에 이정구의 비문을 정학교(丁學敎)가 다시 글씨를 쓰고, 전액(篆額)을 이남식(李南軾)이 새로 쓴 것이다. 비문은 이정구의 문집인 『월사집(月沙集)』에도 기록되어 있다. 유형(1566~1615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의 휘하에 들어가 강화에서 활동하다가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되었다. 1594년(선조27년)에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1598년(선조 31년)에는 이순신(李舜臣) 장군을 도와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도 공을 세워 1601년(선조 34년)에 충무공의 뒤를 이어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에 임명되었다. 이후 충청도·황해도병마절도사(忠淸道·黃海道兵馬節度使) 등을 역임하였으며, 용병술(用兵述)에 능하였고, 통제영(統制營)의 기계 설비와 축성(築城) 등 군사시설을 확립하는데 힘썼다고 전해진다.

- 참고문헌 : 경기도 , 『경기금석대관』5, 경기도, 1992

• **(李鳳祥墓碑)**

- 연 대 : 1746년(영조22년)
- 규 격 : 높이 30cm, 너비 20cm
- 소 재 지 : 출토지 미상, 국사편찬위원회
- 내 용 :

0 이봉상(1676~1728년)은 덕수이씨로 자는 의숙(儀叔), 이순신의 5대손이다. 1702년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내외직을 거쳐 1725년 형조참판으로 훈련금위대장을 겸하였다. 이때 소론대신 이광좌와 조태억을 탄핵하였다가 정미환국(영조 3, 1727년)때 소론이 정권을 잡자 충청병사로 좌천되었다. 당시 영조에게 궁성의 경비를 살피기를 청하고 내려갔다. 다음해 3월 이인좌가 난을 일으켜 청주가 함락되고 작은 아버지 이홍무와 함께 살해되었다. 이인좌가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충무공 집안의 의리를 내세워 적도들을 꾸짖고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어사 이도겸이 순절의 소식을 전하자 영조는 정려를 세우고 좌찬성에 추증하였으며 충민의 시호를 내렸다.

청주에 표충사를 세워 남연년, 홍림과 함께 제향 되었으며 아산의 현충사에도 배향되었다. 비명은 도암 이재가 짓고 유척기가 앞면의 글씨를 전액하여 1746년에 신도비를 세웠다.

현재 탁본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된 연대는 1920년대로 추정된다.

• **이완묘갈(李莞墓碣)**

- 연 대 : 1717년(숙종43년)
- 규 격 : 높이 149cm, 너비 51cm, 두께 15cm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 고기리
- 내 용

0 1717년 지금의 용인시 수지면 고기리에 이완(李莞, 1579~1627년)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묘갈이다. 이진망(李眞望)이 誌를 하였고, 이한일(李漢一)이 글을 썼다. 자는 열보(悅甫)이며,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아버지는 참판(參判)을 증직받은 희신(羲臣)이며, 어머니는 진주 강씨(晋州姜氏)로서 세온(世溫)의 딸이다. 순신(舜臣)의 조카이며, 임진왜란 때 이순신 휘하에서 종군하였다. 1598년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독전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1599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1623년 충청도병마절도사에 올랐다. 이듬해 이천으로 도망치는 이괄(李适)의 난군을 평정한 공으로 가선대부에 올랐다. 1627년 정묘호란 당시 적이 의주를 포위하자 힘을 다해 적과 싸웠지만 중과부적으로 패하고 분사(焚死)하였다.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1706년 아산 현충사에 배향되었다. 부인은 파평 윤씨(坡平尹氏)로서 서윤(庶尹)을 지낸 희(僖)의 딸이며, 부인과의 사이에 1남을 두었다. 묘갈을 통해 이완의 간단한 이력을 살필 수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경기도편, 1993, 『경기금석대관』3, 경기도

• **(李正英神道碑銘)**

- 대 : 1718년(숙종44년)
- 규 격 : 높이 244cm, 너비 85cm, 두께 33cm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44-7번지
- 내 용

0 이 비는 1718년에 건립된 이정영신도비명(李正英神道碑銘)으로 비문이 마멸되어 찬자와 서자를 알 수가 없다.

이정영(李正英)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자수(子修)이며, 호는 서곡(西谷)으로, 판서 이경직(李景稷)의 아들이자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인조 14년(1636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사서가 되고, 1638년에는 검열 · 대교 등을 역임하였다. 1648년에는 수찬, 1650년에는 헌납이 되었다. 효종 10년(1659년) 좌승지로 왕을 보필하였다. 현종 7년(1667년) 도승지로 왕을 보필하였고,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이듬해 다시 한성부우윤이 되었으며 1672년에 다시 한성부판윤이 되어 판의금부사를 겸하였다. 그는 1636년과 167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청나라를 다녀왔으며 1685년 기로소에 들어갔다.

글씨에 뛰어났는데 특히 전서(篆書) · 주서(蟬書)를 잘썼다. 작품으로 〈이순신명량대첩비(李舜臣鳴梁大捷碑)〉 · 〈정여창비(鄭汝昌碑)〉 등 외에 여러 비문이 있다.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서울시 편, 1987, 『서울금석문대관』3, 서울시

• **한백록묘비(韓百祿墓碑)**

- 연 대 : 1657년(효종8년)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 내 용

0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錦山里)에 있는 한백록(韓百祿)의 묘비 비문이다. 비문에 의하면 한백록(1555~1592년)은 본관이 청주(淸州)이고 자(字)는 수지(綏之)이며 춘천에서 태어났다. 26세에 선조(宣祖) 알성과에 급제하였으며 진잠 현감, 지세포 만호 등을 역임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 등과 함께 거제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부산 첨사(釜山僉事)로 승진하였다. 이어 7월 17일에 있었던 미조항 전투에서도 종일 교전하며 큰 활약을 하였는데 승세를 굳히려는 즈음에 날아온 탄환을 맞고 전사하고 말았다. 몹시 무더운 때였으나 노복이 시신을 수습하였을 때 생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1628년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追贈)되었고 1751년 충장(忠壯)이란 시호(諡號)와 함께 정려(旌閭)가 내렸다. 한백록의 7대손 한면유(韓冕裕)의 부탁으로 좌의정 이경일(李敬一)이 비문을 썼다. 한백록의 가계와 함께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조정의 움직임과 임진왜란 초기의 전투 상황을 알 수 있는 비문이다.

- 참고문헌 : 한림대학교 박물관 편, 『춘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춘천군, 1994,